

‘축구장 197개 면적’ 도시공원 부지 확보

전주시, 미래 세대 위한 녹지 공간 확보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중 사유지 1.4㎢ 매입

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중 꼭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녹지 인프라를 지켜갈 수 있게 됐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공공녹지를 보존하고 도시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까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총사업비 2706억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중 축구장 197개 면적에 해당하는 1.4㎢ 규모의 부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지키지 않으면 공원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린 결정으로, 매입된 부지 규모는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14.3㎢) 중 국공유지(4.3㎢)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10㎢)의 약 14%에 해당된다.

세부적으로 시는 △덕진공원 0.668㎢ △효자묘지공원 0.165㎢ △인후공원 0.168㎢ △기린공원 0.063㎢ △산성공원 0.049㎢ △완산공원 0.056㎢ △다가공원 0.01㎢ △화산공원 0.064㎢ △천장공원 0.034㎢ △황방산공원 0.122㎢ △산천공원 0.001㎢ 등 도시공원 부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했다.

특히 시는 부지 매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일



전주시는 공공녹지를 보존하고 도시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까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총사업비 2706억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중 축구장 197개 면적에 해당하는 1.4㎢ 규모의 부지를 매입했다.

부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난달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고 현재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보상 지연으로 인한 실효 사태를 막고,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공원의 산책로 등 필수 이용 시설을 우선 확보함으로써 공원의 핵심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난개발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매입 부지의 규모를 최소화하면서도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원 기능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까지 확보한 부지를 활용에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요 사업은 △동부권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덕진공원)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덕진공원) △완산권역 산불대응센터 신축(완산공원)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기린공원) 등으로, 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지들을 중심으로 생활기반시설과 도시숲 조성, 문화체험 공간 등 시민 체감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확보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가 단순한 토지 매입을 넘어,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환경 자산을 지켜내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신규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민간특례사업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분산할 계획이다.

동시에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해제 이후에도 질서 있는 점진적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지방재 발행이라는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시공원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이라며 “도시의 품격과 환경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설공단, 인라인스케이팅 특강반 운영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라인스케이팅 특강반을 운영한다.

인라인롤러경기장은 다음 달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 인라인스케이팅 초급반과 고급반 2개 특강반을 운영하며 2개 특강반 모두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강습을 진행한다.

강습 인원은 각 반별 15명씩 총 30명이며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선착순으로 강습생을 모집한다.

특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설공단 홈페이지(<https://www.jss.or.kr>)를 참고하거나 인라인롤러경기장(063-



239-2634)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연상 이사장은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체육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10일 시청 8층 재난상황실에서 운동목 부시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동장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 이어 예코시티 16블럭 공동주택 신축 현장과 덕진구 이동노동자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폭염특보 대응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

운동목 전주 부시장 주재 동장 대책회의 열고 대응계획 점검

전주시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10일 시청 8층 재난상황실에서 운동목 부시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동장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 동별 폭염·호우·태풍 등 재난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완산·덕진구청장과 34개 동장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윤 부시장은 여름철 복합 재난에 대한 선제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재난취약지역 및 우선대피자 관리 현황 △마을순찰대 및 대피도우미 운영 실태 △마을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협력 체계 구축 △폭염 저감시설 현황 및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 동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계획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윤 부시장은 최근 장마의 이른 종료 이후 지속되는 극심한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기상 여건 속에서 각 동 주민센터가 재난 대응의 최일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천 대응능력을 강

화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회의에 이어 예코시티 16블럭 공동주택 신축 현장과 덕진구 이동노동자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폭염특보 대응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옥외작업 현장의 그늘막·살수시설 설치 여부와 휴게시간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으며, 이동노동자센터에서는 냉방시설·식수 제공·운영 시간 등 폭염 대응 여건 등을 집중 들여다봤다.

시는 이번 회의와 현장점검을 계기로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민첩함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운동목 전주 부시장은 “각종 재난 발생 시에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초기 예찰과 상황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동 주민센터는 재난 대응의 최일선 행정기관으로, 초기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완산회, 7월 정기회의 갖고 지역 발전 방안 논의

전주시 완산구 관내 주요 유관기관 및 단체·기업체 대표로 구성된 완산회(회장 조병두)가 완산구 관내 음식점에서 7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완산회 임원진 및 회원, 김

용삼 완산구청장이 참석하여 시정 및 구정 홍보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철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강화 △복지 사

중화산1동 지사협, 소외 이웃에 선품기 나눔

전주시 중화산1동(동장 김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병영)는 10일 무더운 여름을 함께계 나고 있는 지역 내 소외 이웃에 선품기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금번 나눔행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금을 부리는 더위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여름을 보내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으며, 행사를 통해 선품기 10대를 관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여름용품 나눔 대상자는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통합돌봄 담당자와 협의해 선정했으며,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를 통해 대상자 가정에 전달했다.



박병영 중화산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나눔물품으로 우리 이웃이 여름을 지내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주민 모두가 행복하는 중화산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송천1동, 암스 송천점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전주시 덕진구 송천1동 주민센터(동장 전지현)와 송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성경훈)는 10일,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한 '암스 송천점(대표 이지훈)'을 방문해 현판식을 가졌다.

착한가게는 소상공인들이 매출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캠페인으로, 암스 송천점이 가입하여 송천1동 착한가게 22호점이 탄생하게 됐다.

이지훈 암스 송천점 대표는 “지역업체로서 힘든 시기를 겪을 때도 있었지만,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때 마음은 더 풍요로워진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